朝鮮日報

發行所 朝鮮日報社 서울市太平路一街 電話 本局③ 三八五·三八四 月定購讀料 六十圓

社說 中學生諸君은 學校로도라가라

一

서울大學問題는 드디어 學生으로하여금 自身의 自殺을 意味하는 盟休를 斷行케하는 段階에 이르도록 惡化되었다 一個大學案의 問題가 아니오 文敎當局만의 問題가 아니라 이地境에 이른 오늘에 있어서는 全民族의 問題이며 民族的으로 論議할 重大問題가 아닐수 없다 써 우리는 서울大學案에 對한 當局의 誠意있는 再檢討를 促하는 바이거니와 그撤回運動에 中學生諸君까지 動搖하고 있다는 事實에 對하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必要가 있을 줄안다 서울大學問題는 여러가지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것이지만 그核心的인 主潮는 亦是 思想的인데 있으며 딸아서 政治的인 것이다 그러다고하면 中學生까지 그般後의 行動인 盟休로써 思想戰에 動員하지 안으면 안될 段階에 있나하는것은 民族의 將來를 爲하여 愼重히 考慮되어야할 問題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二

우리는 中學生의 思想的 洗鍊을 促進하고싶다 그러나 오늘날 段階에 있어 中學生諸君까지 思想鬪爭의 한복판에 몸소 뛰어드는것은 不備不滿을 참어가면서 成長하는 學生답게 思想을 修練하며 課工에 努力하는것과 어느것이 朝鮮의 建設에 有益할가는 問題가 아니다 決코 思想을 爲한 政治戰의 圈外에 서 주기를 바란다 學內에서 硏究討論은 勿論 推奬하는 바이나 적어도 一般社會의 그것에는 參加하지 않는것이 國家를 爲하여 有利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럼으로 中學生諸君은 위선 學校로 도라가기를 衷心으로 勸告한다。

三

그런데 이번 中學校盟休事件에 그 機務에도 不拘하고 서울大學案에만 있는것이 아니라는 實情에 하여는 文敎當局으로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點이 있는줄안다 지금까지 中學生諸君이 참어온 困境에 對하여는 오히려 同情을 禁할수없는 點이 있다「추어도 燃料가 없는 學校에 가도 先生의 缺勤이 많었다 敎科書가 없다」는 事情等은 學生에게 負擔이 過重했던 것이다 中學이나 勿論하고 彼此에 애닯은 事情이면서도 亦是 과도운일임에는 틀림없을것이다 이런困難은 勿論 學校에 限한일은 아니지만 當局으로서는 이와같은 惡條件除去에 좀더 努力이 있어 맛당하리라 생각하는 바이거니와 中學生諸君은 우리나라의 健全한 發展과 그將來를 爲하여 하루바비 學校로 도라가기를 衷心으로 勸告하는 바이다 諸君이 實踐해야 할 날은 아직 앞에 있는 것이다。

朝鮮에 適當配給爲해 占領地借款減縮反對

「마샬」長官記者團會見談

【워싱톤十五日發AFP合同】美國務長官「마-샬」氏는 新聞記者會見席上에서 當面問題에 關하여 如左히 말하였다

△莫府四外相會議=나는 莫府四外相會議에 參席하기爲하야 來三月五日부터 七日까지 間에 莫府로 向할 豫定인데 나의 隨員은 아직 決定되지 않고 있다

△朝鮮問題=나는 外國에 對한 美國의 借款을 減縮시키는데 反對하는 바이다 特히 美軍占領下에 있는 朝鮮人民에 適當한 配給을 주는데 助力코자 朝鮮에 許與한 借款을 減縮시키는데 反對할것이다 萬若 美軍占領地域의 人民이 飢死하는 境遇에는 現在의 美軍占領業務를 維持하야 갈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美國務省當局은 美軍占領地域의 狀態에 關하야 直接關心을 갖이고 있는데 如斯한 借款의 減縮은 美國의 國際的立場에 또 影響을 미치는것이다 一部報道에 依하면 某蘇聯將校는 그의 書信에 있어서 南朝鮮의 某團體가 美當局에 對抗하야 蹶起할것을 要請하고 있다는데 나는 이報道에 對한 公式確認을 키다리고 있다

立議官選五氏 補選決定發表

呂運亨、洪命憙、趙琬九、嚴恒燮、張建相五氏

의 參加拒否에 따르는 立法議院官選議員의 補選은 그間銓衡中이던바 十五日公報部를 通하여 다음과같이 그氏名이 發表되었다

△朴容羲(韓獨) △金尙德(民統事務局長) △李甲成(醫師) △金益東(韓獨) △李寬求(서울新聞主筆)

立議官選補選에 對하야「하-지」中將은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立法議院官選議員에 右記人士가 任命된것은 左右合作委員會의 提案을 充分히 檢討하고 諸指導者들과 協議한 結果이다

南朝鮮駐屯美軍司令官에 「부라운」少將臨時任命

共委首席代表「논웨카링」代將

公報部特別發表 朝鮮問題에 關하여 美國政府高官들과 協議하고자 只今華盛頓으로 向하는 途中에 있는「알•하-지」中將의 臨時不在中에 朝鮮駐屯美軍司令官으로서「알•바-•이•부라운」少將이 任命되였다「부라운」少將은 昨年九月二十三日以來 美蘇共同委員會首席代表로써 그는지난 四個月동안 南朝鮮駐屯步兵第六師團長으로써 朝鮮駐屯에 關한 諸般問題에 對하야 緊密한 關係를 갖이고 왔다 부라운少將은 南「캐로라이나」州「차르레스톤」市出身으로 多年間陸軍省參謀部의 豫算及法制研究所長 參謀總長副官室勤務「하와이」局長代理等의 要職에 있었든 經驗이 있다 戰地勤務로서는 第一次大戰時에 佛蘭西地域에 參加하였고 第二次大戰時에는 二個戰地에 服務한 일이 있다「부라운」少將은 와조島上陸部隊의 司令官으로써 日本軍隊를 아류-산島로부터 逐出하였다 其後歐洲方面의 陸軍增援部隊의 司令官으로 就任하였으며 墺太利及「체코스로바키아」의 最後戰爭을 指揮하였다「부라운」少將이 駐屯司令官으로 있는 暫時동안은 昨年七月부터 美蘇共同委員會의 한 代表로써 活躍하여온「잔•웨커링」代將이 共同委員會의 首席代表가 될것이다

第二回 부라운少將聲明

모스크協定은 唯一한 既成條約 自主獨立完遂를 保證

美蘇共委美側首席代表「부라운」少將은 지난十日 모스크ー協定과 美蘇共委의 職能을 明確히 理解하라는 第一次聲明을 發表하였는데 十四日에는 第二次聲明書를 發表하였다 그리고 此後로 數次로 繼續發表한다 한다

【公報部發表】第一次聲明書에서 내가 指摘한바와같이 내가 여러 朝鮮人理論家들과 討議하여 보면 볼수록 南朝鮮의 國民이 모스크ー協定이나 美蘇共同委員會의 職能을 明確히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明白하다 그러나 모스크ー協定은 거기에 對한 誤解가 있고 若干의 指導者에 依하야 自己目的을 爲하야 朝鮮人間에 傳播되고 있으나 모스크ー協定은 朝鮮을 外國의 統治下에 束縛하여 두자는 精神밑에서 此를 考案한 것이 아니다 이와 正反對로 四大聯合國 英、中、美、蘇는 그들의 戰爭中의 犧牲的努力으로써 朝鮮의 解放을 可能케 한 後 朝鮮의 順序的階段에 依한 完全獨立에 同意한것이며 朝鮮이 어떠한 外國이나 또는 聯合國의 一個國의 統治下에 들어가지 않도록 特別注意를 考慮된것이다 該協定이 成立되었을때는 戰爭後의 世界情勢를 豫測할수 없었든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世界의 政治、經濟의 形態는 多少 明確치 못한 點이 있다 모스크ー協定에 依하여 成立된 美蘇共同委員會에 關하여도 많은 朝鮮사람은 萬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하기 爲하여 朝鮮人代表者를 參加시킬때는 共同委員會가 모스크ー協定을 修正하기 爲한 討論會나 論壇으로 變할것같이 誤解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槪念은 全然 誤謬이다 最近의 事態로 보아 朝鮮의 獨立을 爲한 모스크ー協定의 規定을 說明하는 連續聲明을 發表하는것이 重要하다는 것을 아랐다 그러므로 나는 모스크ー協定과 그 事實上 意味를 美蘇共同委員會 美國側代表들과 討議하여 본 結果 朝鮮사람들은 모스크ー協定은 그 討論에서 說明된바와 같이 絶對로 朝鮮에 有害한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滿足할 것이다 모스크ー協定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處置를 講究하게 되었다 그리하야 여기에서 이를 明白히 하기 爲하야 大槪 몇가지 階段으로 나누었다

一、第一項 臨時政府의 樹立

第一階段 共同委員會는 朝鮮臨時政府의 形成과 組織에 關하야 朝鮮의 各政黨及社會團體의 指導者들의 意見을 聽取하고 이와 會合하게 된것이며 朝鮮의 經濟的發展에 關한 意見도 聽取하게 될것이다

第二階段 共同委員會는 該朝鮮人指導者들의 意見을 充分히 考慮하여 臨時政府의 形成과 組織에 對한 同委員會의 提案을 起草하게 될것이다

第三階段 其後 臨時政府樹立의 計劃案은 美國과 蘇聯兩國이 이를 最後로 決定하기 前에 美、蘇、英、中 四大國에 提出하게 될것이다

第四階段 朝鮮臨時政府는 여기에 成立될것이며 따라서 朝鮮政府가 健全한 發達을 하고 朝鮮의 獨立이 約束된것을 保證하기 爲한 聯合國의 一時的 指導를 받어 統一된 朝鮮을 統治하는데 對한 重任을 지게될것이다

二、第二項 朝鮮의 獨立完遂에 對한 諸方法의 公式

第一階段 共同委員會는 臨時朝鮮民主主義政府及朝鮮民主主義諸團體와 같이 朝鮮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發展과 朝鮮民主主義自主政府의 樹立等에 對하야 此를 援助及後援(信託)하는 方法의 細則을 案出하게 될것이다

第二階段 共同委員會에서 決定된 提案은 朝鮮을 最高五年間 四個國이 信託統治하는데 同意를 얻기爲하야 美蘇英中各政府에 提出하게 될것이다

朝鮮사람들이 異議를 提出하고 있는 點은 그 該協定의 第二項인데 그것은 單純히 協定原文에「信託」이라는 語句가 있는 까닭으로 그中에 包含된 援助와 保護라는 性質에 對하여는 아무 考慮를 하여보지 않는 까닭이다

三、第三項 朝鮮獨立

第二項에서 決定된 四個國協定의 窮極의 目的은 朝鮮의 完全自主獨立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槪念的輪廓에 지나지 않음으로 또는 그 聲明에서 여러분과 같이 以上 列擧한 諸階段의 內容을 차례로 檢討하여 보라고 하는 바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朝鮮國民에게 朝鮮獨立을 爲한 모스크ー協定의 條項을 理解시킬 수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바이다 나는 全朝鮮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스크ー協定은 朝鮮을 奴隸化시키자는 것이라고 민도록 하려는 어떤 個人에 對하야도 愼重且冷靜한 態度로써 此를 警戒하여야 된다는 것을 極力 忠告하는 바이며 그와같은 사람들은 모스크ー協定의 公文을 硏究하여 보았는가 모스크ー協定에 對하야 또는 그들의 見解는 浪說이나 或은 他人의 聲明에 依하야 形成된 것이 아닌가를 質問하여 보기 바란다 모스크ー決定은 四大聯合國에서 獨立朝鮮의 發展을 爲하야 嚴肅히 協定한 旣成條約이며 따라서 朝鮮의 統一國家로서의 自主獨立을 完遂하고 이를 保證하는 準備한 唯一한 旣成國際條約이다

美加共同防衛案

加首相繼續을強調

【오타와十四日發AP合同】加首相「킹그」氏는 加奈陀議會에서 戰時 美、加兩國共同防禦協力繼續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였다

現在戰時의 美加協力을 繼續하려는 案이 企圖되고 있는데 同案의 必然性은 美加兩國의 地理的隣接狀態와 同時에 國家自衛方法으로서의 國際協同體의 必要性을 反映한것이다 美國과의 協力이 繼續을 躊躇시키는 原因은 英國과의 傳統的協同關係와 英帝國分裂의 威脅을 念慮함에 있는것이다 今番戰時美加協力繼續案은 決코 如斯한 英帝國과의 協同關係에 支障을 齎來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美國이 加領「노ー드란드」에 基地를 要求하고 있다는 報道는 全然根據없는 浪說이다

日議會分野

【東京十三日發共立】十四日再開된 第九十二通常議會의 議席分野는 如左하다

總議席四六六中自由黨一四八進步黨一一一社會黨九九協同民衆黨四四國民黨三二共産黨六無所屬俱樂部二一無所屬四缺員一이다

美上下院委員會에서 豫算削減案可決

六十億減額

【워싱톤十五日發INS合同】美上下兩院共同豫算審議委員會는 一九四七－一九四八年度豫算案削減에 關하여 削減額六十億弗을 五十對卅二로 可決하였다한다 그러고 上下兩院經費課稅委員會에서는 그의 多數黨인 共和黨이 削減額四十一億五千萬弗乃至四十億五千萬弗을 主張하는 民主黨提案을 打破하였으며 同時에 陸海軍省豫算削減案及國債削減案도 打破하였다는것이다 이決議는 陸海軍兩長官이 軍費縮少로 因하여 國家的危機가 到來하리라는 警告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採擇된것이다 또한 今般削減額六十億中에는 (一)陸軍省十億弗(二)海軍省七億五千萬弗(三)陸軍省民政局五億弗等의 削減額이 包含되여있다

墺國內生産品 蘇聯서沒收移送

【비엔나十五日發로이타合同】現在까지 墺國經濟는 蘇聯管轄下에 運營되고 있는 墺國內工場의 生産品에 依하야 어느程度助長되였었으나 最近에 이르러 如斯한 工場生産品은 蘇聯으로 移送되고 있다 한다 또 이 生産品中에는 墺國이 가장 必要로 하고 있는 農業機械도 包含되고 있다 한다 그러나 蘇聯은 同生産品을 軍隊所屬資産沒收名目下에 移送하고 있는데 이는 墺國稅法의 制限을 받지 않게 하기爲한 것이라 한다

英 非常에 寒再 態現

【런던十四日UP發朝通】英國은 十三日로서 電氣强制節約第四日을 맞이하여 드디어 戰時體制를 再現하여 非常時法規를 適用할 權限을 갖인 官憲은 規則違反者를 摘發코저 市街를 巡行中에 있다 法的意味에 있어서는 그러치 않으나 事實上非常狀態에 있는 英國은 嚴寒과 石炭危機에 對한 作戰司令部를 政府內에 設置하고 目下「애트리」首相以下의 作戰參謀를 이經濟戰을 指揮中에 있다

南朝鮮에 革命惹起를 北朝鮮서 蘇將校가 指令

【在서울AP特派員「로버-트」氏提供十五日合同】南朝鮮駐屯美軍消息通言明에 依하면 朝鮮警察은 最近蘇聯軍當局으로부터 南朝鮮에 있는 朝鮮人勞動運動指導者에게 보낸 書翰의 複寫를 沒收하였다 하는데 그內容은 美軍占領下의 南朝鮮에서 革命豫備段階로서 學生들의 同盟休學을 斷行시키라는 內容의 것이였다 한다 그러고 이書翰의 複寫는 서울市에 있는 學生協會本部에서 十二日 押收된것이라 하며 同書翰의 原文도 發見되였다 한다 卽同書翰은 北朝鮮蘇聯軍敎育問題主任將校인「니코라이•쿠즈노프」少佐로부터 南朝鮮勞働黨委員長許憲氏에게 보내온 것이라 하나 許氏는 이를 否定하고 있다 한다 그러고 同書翰의 內容을 보면 南朝鮮勞働組合聯盟은 南朝鮮全體에 亘하여 革命을 惹起시키라는 것인데 其目的은 南朝鮮美軍政廳을 一掃시키는데 있으며 그 第一步로서 學生들의 盟休를 斷行시키라는 것이였다 한다

確報를企待

마美國務長官談

【워싱톤十五日發AP合同】美國務長官「마-샬」氏는 新聞記者會見席上에서「美國務省은 北朝鮮의 蘇聯當局은 南朝鮮反亂의 展開를 使嗾하고 있다」라는 報道에 對한 美側態度를 決定하기前에「서울」로부터의 正式確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非常國議第二日

午前中國內外情勢報告

非常國民會議 第二次會議는 十五日上午十一時부터 昌德宮에서 續開되었다 代議員八十三名參席下에 張德秀氏의 國際情勢報告에 이어 擊韓氏의 國內情勢報告 事務局長 朴允進氏의 常任委員會工作經過報告 民主議院秘書局長 尹致暎氏의 民主議院經過報告와 民主議院代表로 今番渡英하야 倫敦活動中인 林炳稷氏로부터 來電이 있었다는 報告가 있었다 이어 補充及批判에 드러가기前에 張德秀議員으로부터 國內情勢報告中「中央協議會의 要請으로 非常國民會議라한 것이다」라는 것은 事實無根이며「非常政治會議籌備會의 決議로서」된 것이니 訂正하라는 提議와 尹致暎氏로부터 同報告書中「民主議院으로 하여금 또한번 過誤를 犯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指摘하라는 質議 鄭光好議員으로부터「國內情勢報告」는 全體로 보아 事實과 相違하니 修正해서 記錄하도록 修正委員三名을 選出하자는

中國經濟危機에直面

蔣主席은打開可能言明

【南京十四日發AP合同】中國의 現經濟狀態는 貨幣暴落으로 말미아마 破綻一步前에 近迫한 危急狀態에 있는데 이에 對한 中央政府當局者들의 動向은 다음과 같다

蔣介石氏는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政府는 現經濟危急狀態를 適當히 打開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한다 一面行政院長宋子文氏는 財政部長兪鴻鈞氏及中央銀行總裁貝祖詒氏와 現下幣暴落狀態에 關하여 協議하였는데 그 協議結果는 發表되지 않었다 又 宣傳部長彭學沛氏는 新聞記者團에게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政府當局은 現經濟危機를 打開할 適切한 措置를 考慮中이다 中國의 現經濟狀態惡化는 八年間에 亘한 日本의 侵略과 二年間繼續되는 中共軍의 分解破壞行動等에 起因하는 바이다 何如間 今年은 經濟的復興에 가장 困難한 해일것이다 우리는 現經濟狀態가 單只貨幣名을 改稱한다던가 또는 爲替時勢、關稅率等을 適當히 改定함으로써 收拾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될것이다」그러고 食糧經濟部에서는 職員들에 對하여 貨幣보다도 食糧其他必需品으로 給料를 支給하는 案을 考慮中이라 한다

對策에腐心

【上海十四日發AP合同】國幣의 對美換算率은 前日의 最高一萬九千對一로부터 若干恢復되어 一萬三千對一美弗을 堅持하고 있다 그러고 中國政府는 對策으로서 美國弗의 流通禁止案을 計劃中이다 果然如何한 方法을 取할는지 疑問視되고 있으며 또 金國有案을 立案中이라고도 하나 一面政府는 生活必需品의 配給制를 立案中이라는 風說도 流布되고 있다

三八線撤廢를呼訴

西北協會서 美記者團에 書翰

西北協會에서는 이번 朝鮮을 視察한 美國新聞記者團에게 同協會理事長方應謨氏名義로 다음과 같은 書翰을 보냈다

一、三八線障壁으로 因하야 西北朝鮮同胞들은 政治、經濟、文化、倫理等 各方面에 걸처 悲慘한 地境에 놓여있으니 이의 速急撤廢를 美國輿論에 呼訴

二、信託統治를 韓國民族의 絶對反對하는 바이니 莫府三相會議의 信託條項은 削除해주기를 바란다

美海兵被擊

【北平十五日UP發朝鮮】公式發表에 依하면 美國海兵一名이 十三日夜北平商業街에서 狙擊을 當하여 死亡하였다한다

大學問題管見

金 之 牧

一、國大의成立

昨年七月 여름放學을 앞두고 文敎部에서 一方的으로 爆彈宣言을 내린것이 이른바 서울國立大學校案이다。이것은 우리나라의 高等敎育을 根本的으로 革新하는 大提案이였다。學園은 總起立하여 猛烈한 反對意見을 表明하였다。그러나 이내 여름放學이 되어 反對運動도 흐지부지해버리고 또 一部識者間에는 이案은 너무나 劃期的인것이어서 쉽사리 實施할수 없을것이며 또 實施하더래도 老練한 敎育者를 網羅하여 充分한 檢討를 거쳐야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였다。그러나 豫想에反하야 放學中인 八月二十二日에 이것이 法令化하여 그달末日附로 京城大學以下 各官立專門學校가 모다閉鎖되고 九月以後關係敎員은 새大學에 새로히就職願書를 냄으로써 또學生들은登錄을함으로써 身分을維持할수있다고 마련되였다 이것은 文敎當局이 九月의新學年부터 새制度를 實施하려는 意圖에서나온 不得已한措處이겠지만 放學동안에 자기도모르는자이에 身分을喪失해버린 敎員과學生들은 섭섭하지 않을수없었을것이다 더욱이 새로히밟어야하는 번거로운절차는 그것이 事務技術上으로 必要한것일는지 모르나 생각하기에따라선 學徒의 純情을傷하는것이였다 또처음부터이 國大案이 맛당치않은것은 생각하였기때문에 一部敎授들은 스스로學園을물러나고 學生들은 한동안登錄拒否를 主張하였으나 여러가지 曲折을 겪은후에 마침내 登錄에 應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서울國立大學校案은 文字그대로 强行되였다。그、雜音통에 우만의 세월을 虛送하고 十月末 前後하여 各分科大學이 開學하기에 이르렀으나 文理科大學의 文科等 몇몇大學外에는 大部分이 敎授의 未整備 其他關係로 完全한 開學이 되지못하였다。그러나 어느程度까지의 混亂과 停滯는 이러한 巨大한 改革期에 있어서 避할수 없는일이며 또 그成果는 將來에 다하야 期할수 있는것이므로 初創期에 있어서 燥急한 論難을 삼가고저 하는바 아니나 이미 이 問題로하여 學園의 大動亂을 招來하였음에 그 是非得失을가리지 않을수없는 바이며 또 그동안의 運營狀況을 檢討하여서 拔本塞源的으로 고처야할것은 고처야 한것이다。我執에 拘碍되어 過誤를 되푸리함은 우리들의가장 삼가야할일이다。

二、國大의長點

國立綜合大學을 구미는 理由로 當局이 列擧한 條目은 첫째 不足한 設備를 最高度로 利用하게하여 學生의 收容力을 늘리고 또 有能한 敎授를 最大限으로 動員시켜서 講義의 充實을 圖하는 한편 國家의 經費를 節約하고도 敎員의 待遇를 改善할수 있으며 둘째로 學園을 全面的으로 改編함으로써 그 日帝殘滓를 抹殺하며 또 이러한 大綜合大學을 實現함으로써 서울國立大學校를 世界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릴수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以上의 理由에 對하야 몇가지 疑問을 품지않을수 없었다 첫째 旣存設備의 利用度를 높여서 學生의 收容力을 늘린다는것은 이왕 다같은 官立學校인 바엔 技術的으로 解決할수있는바이요 그결로써 國大案을 强化하는 理由가 되지못할것이며 學生의 收容力云云은 現下우리나라에서 가장必要하다고 생각되는 自然科學系統의 새學校를 두어 한學校로 만들어서 어떻게 實質的으로 收容力을 늘릴수있을까 疑問이고 또 敎授에게의 過度한 講義의 負擔은 研究를 阻害하는 結果가 되어서 學問水準의 向上에 支障이 되지않을까 저어되는바이며 積極的인 敎員의 待遇改善을 피하지않고 經費節約만을 爲主함은 國大의 本意를 疑心케하는 바이다。둘째로 日帝殘滓를 抹殺한다함은 너무나 애매한 口號이고 또 이러한 口號는 오늘날 조선사람이 모다 自己省察에 援用하여야 할것이지 함부로 이를 他에게 휘둘러서 자기의 伏意를 貫徹코저하는 한가지 口實로 利用되어서는 않될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口號아래 各學校에 培養되어온 學風과 傳統이 抹殺되는건 愛惜한일이며 더욱이 世界著名의大學에 比肩할 大學을만든다함은 理解할수없는말이다。왜 그러냐하면 大學의 水準向上은 質的으로 學問水準의 向上을도모해야한것을 여기저기있는學校를 억지로 합쳐서 명치만 크게만든다고 世界에 有數한 大學이될수는 도저히 없을것이다 이러한엉뚱한 說明은 良心있는學徒가 듯기를願치않는바이다。

三、國大案의疑問

國大案에對한疑問은 우에적은것만이아니다 그가장 큰것은 이른바理事會에 對한疑問이다 理事會가 敎授의任免權을 갖인다함은 파런宜當한일인 까小學校와 敎員이나 또는株式會社와 社員일것 같으면 一定한 資格에依하야 官僚나重役이 任意로任免할수을때이지만 各專門分野에亘한大學敎授의 任免을어찌小數의 官僚理事가行할수있을것인가 그것은 學園을「御用」學者의 巢窟化하는것으로 國家民族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賢明한길이아닐것이다 敎授의任免權은 게는 實地의運營如何에 따라서설사是正할수있다 하더래도 理事會의 構成 그自體부터 吾人은到底히 承服할수 없는바이다。왜그러냐하면 앞으로 政黨政治가 實現될때 學園만은 비록 官學일지라도 政變의 影響을 입지말어야 할것은 贅言을 不要하는바이다。그러라면 官僚理事會가 學園의 中樞神經을 이루어야한것인가 敎授會의 自治로 運營되어야 할것인가。이는 더 말치않아도 自明한 理致다。

나는 以上에서 말한바와같이 盟休를 좋아하지않는다。그러나 萬一 國大案이 現機構대로 存續되어 理事會의 動向이 政變에 따라 學園의 靜穩을 阻害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對抗策으로 敎授와 學生의 共同闘爭―그 手段方法은 오로지 盟休뿐만이 아닐것이나―이 있어야 할것도 하는바이다。

그러나 國大案은 이러한 疑問은 整治한대로 그實施의時期는 역시充分한 考慮가 있어야할것이다。이러한 重大案件을 우리統一政府의成立을기다려서 하는것이 安當한 일이 아닐까 良心的인 軍政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管理하는 占有者의 權限을 넘지않어야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첫째는 軍政의 改革이 앞날에 樹立할 우리政府의 意向과 符合하기를 期必할수없는바이며 그렇다면 그 改革에 따르는 無用한 混亂을 避하고 本質的인 改革을 삼가는것이 過渡期軍政의 良心일것이며 또는 現下의 朝鮮처럼 南北으로 理念을 달리하는 두나라 軍隊가 駐屯해 있을경우에 彼此에 그 나라의 制度에 迎合하는 改革을 함부로함은 그改革自體의 是非는 姑捨하고라도 조선의 統一을 阻害하는 것이며 앞날에 세워질 우리政府의 行動을 制約하는 結果에 이를것이니 眞正한 愛國者이면 삼가야할일이다。또 學校自體도 보아 時間尙早인것이 專門學校가 單科大學으로 昇格하여 充分한 育成이 없이 統合을斷行하였으므로 그後의 混亂이 加重되었다고 우리는본다

四、國大의運營

國大案에對한 이러한 疑問은 當局의意圖를充分히 理解하지못하므로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國大案成立後의 運營이如意치못했다는것은 當局도否定할수 없을것이다 師範大學과 商科大學의 紛亂이 오랫동안이어 고 醫科大學이 그러한동안 그러하였고 法科大學마저 學生들이 開學休講의狀態를 指摘하여盟休에이르렀고 工科大學과文理科大學의 理科는 敎員의不足으로 滿足한 講義를 하지못하고있는 現狀이다 敎員의絶對數不足은 文敎當局으로서도 어쩔할수없는일이라할지모르나 이學校들이다 國大案以前에는充分한 授業을하였음을留意해야할것이다 아무리좋은 새制度를위한犧牲이라 할지라도 이重要한時期에 아모成算도 없이 數千名國立大學學生을 거진半年동안이나 놀리었다는것은 建國途上에있어 文化的으로 큰損失이다 아니할수없다。事務方面에 있어서도 비록過渡期的現狀이기는하지만 本部와各分科大學과의 指揮命令과監督系統이 微妙해서分科大學의 事務員들은일에 대한 熱意를 잃고따라서 事務가 澁滯하는것도 充分한 設計없이 너무큰집을 너무急하게세워 造成한데 原因이아닐까 設備의 故障이라는 口實도 있지만 이것을 한 事務系統은 充分한 保溫을 하였음에도 敎室과研究室과 圖書館은 一點의火氣가 없이 지냈다는것은 大學存立의使命에 비치어보아 奇異한느낌을禁할수없는바이다。

(文理大의 實例)

國大案이 實施된지 于今半年에 旣存設備가얼마나 有効하게 利用되고 各單科大學으로 그냥두기보다 學生이 얼마나많이 收容되었는가 나는 모른다。敎員은 每週日아홉時間以上의 講義를 말아서 講義準備에 過度한 負擔을 질머지게 되였건만 그 待遇가前에比하여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직도 듣지못하였다。敎員에게 硏究費를 支給하여 그 最低生活을 保障함은 그 絶對數의 確保와 南朝鮮의 文化水準維持를위하여 時急히 要請되는바이다。現在以上으로優秀한科學者를 먼곳으로 보내버리면 南朝鮮의一部科目은 實質的으로大學敎育이 成立되지못할것이아닌가를 저어함으로써이다。

五、解決에의展望

우리는 朝鮮의 後進性을 하로바삐 克服하기위하여 밤낮을 헤아리지않고 공부해야할처지에있다。오늘날 燎原의火勢와같이 번지는 同盟休學도 좀더 좋은 배움의 環境을만들어서 앞날엔 더 부즈런이공부하겠다는 熱意에서 나온것이라야지 秋毫라도 氣分的行動에 흐르는일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當局에 있어서도 父兄이 子姪을 對하듯 아무런先入見없이 虛心坦懷하게 그들의 不平을 들어줄 힘자라는데까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배울수있는 學園을 만들어주기에 서슴지말어야 할것이다。마침 러―취長官의言明으로 國大總長과 理事에 朝鮮人을 起用할 計劃을이미 세우고 멀지않아 實現되리라 하니 우울한 學園에 한낱 커다란 朗報이다 國大案의 문제같은 이른바 하로아침에 實施하기도 어렵거니와 갑자기撤回하기도 또한쉬운일이아닐것이니 斯界의權威를 모아서 國大案再檢討委員會를 構成하고 그에對한 對策을講究케함이 가장穩便한길이 아닐까한다 文敎當局에서 애초에이런 모임을거쳐서 案을세웠어야 할것이고 또좀 더 일즉이 있었으면 現下의이 事態에 이르지는않었을것이다 많은敎育家들이 承服할수있도록充分히 國大案의意圖를周知시키지 못해서 오늘날 必要以上의 疑惑을사고 있는것같으니 이러한 委員會로 通하여彼此에 意思流通을 圖하는 한편 고칠것은 고치고 撤回할것은 撤回하는 勇斷이 있어야할것이다。

學生側도 問題의 全部解決을 固執해서 너무長期間學業을 떠남이없이 하로바삐 공부를계속하도록하라 들리는바에依하면 年末에시작된日本의敎育同盟罷業은 아직新聞에는 그저盟罷라고만 報導되어서 授業을하지않고 아이들을놀리는것인가 생각되리만 實地로는 上部의命令을뽀이콭할뿐이고 한시간도授業을거른일은없다고한다 이사실은 이곳의敎育抗爭에도 他山之石이되지않을까한다 이것을筆者의空想일는지모르나 어 國大명제배워가면서「突入」하는 「盟休」는 있을수없을까 이번엔 日帝의奴隷敎育과의 오랜抗爭끝에 盟休도이젠이력이났을법하니 그러한妙案도 나올법한일이다。

一한가지 이번에 몇몇中學校가 이문제로움즈긴것은 유감이다 大學問題는 大學이 解決할일이다 大學生들이 할일은 제손으로 解決하지못하고 中學生들에게 累를 끼친것은 決코 그들의 名譽일수 없을것이다 中學生들은 앞으로 學期試驗을 앞두고 大學問題도 발벗고 나설時期가 아닐것이다 그대들이 진실로 試驗을 忌避하는 氣分이 석기지않은 純粹한 行動임을 보이려거든 大學에 대한 同情은 이만 程度로 그치고 하로바삐 學業에로 다가서 試驗에 應하라。

「우리는 나이어릴때에 알지않아도 좋을일을 알지않을수 없었다」라고한 포―ㄴ드詩人의 솔픈 心情을 나는잘알수있다。나는 諸君에게 서슴지않고 學園에의復歸를 권하는것이니 내 이 衷情을 그대들은 잘 理解할줄로믿기때문이다

(一九四七、二、七記)

「盟休」의見解와解決策

現實에 맞는 修訂을

當局措處에 拙劣한點많다

李 萬 珪

一、見解

1、大學案에對한批判은 昨年發表當時에 各言論界名士와 大學敎授들이 新聞紙上에披瀝한것이 있으니 다시말하지않겠읍니다

2、實施에있어서 敎授를全部解免시키고 다시就職願을提出시키며 在學生을再登錄한것은 微妙한사람의感情을 無視한 拙劣한方法이었읍니다

3、學校가 한敎授를 많이喪失한것은 包攝하는度量이不足한 偏狹한措置였읍니다 全校休校、全校休學같은 處置는 朝鮮一千七百年敎育史上에없는 初有事입니다 李朝에서도 頻數한 大學生의 空舘(同盟休學하고歸家)이 다國王의 詔命에反抗한것이었건만 언제나政府가讓步하고 國王이命令을撤回하였을뿐이였고 一九一九年 獨立運動과 一九二九年光州學生事件과 戰爭中에 各公立中學校에서 일어난 同盟休業이 다日本帝國主義를反抗한 學生運動이였것만 한번도全校休學或全級停學令을나린때는없었읍니다。

또대체 國家가成立되어야 國民總意에依한 國體가規定되고 國體가規定되어야 敎育의理念이서고 敎育理念이서야 거기맞는 敎育制度가 생기고 國家經濟計劃대로 敎育의 程度가 作定되는것인데 이러한 合理的 順序를 밟지않고 國家도 서기前에 몇個人의 獨斷的見解에서 思想、經濟、習慣에 맞지않는 敎育案이 나왔으므로 大小의 矛盾性을 흠뻑 內包하였읍니다 以上몇가지가 盟休의 原因이라고 봅니다

二、解決策

朝鮮의固有한敎育方式을 取하면좋읍니다 文獻備考學校考捲堂(同盟休校)條도 文敎當局者에紹介하고싶읍니다 얼마나國王과政府가 敎化的으로나아갔던것을 알수있읍니다

文敎部當局은 이盟休를 西洋式으로 勞資爭議나 主從對立같은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될니다 또 在上者의 體面觀念이나 權力發動을 스스로 抑止하여야합니다 完全히 敎育的見地에서 盟休그속에 敎育的要素가 있는것을 發見하기에 努力하기를 바랍니다 卽靑年의 批判力、團結力、敢鬪하는 氣質이 세가진데 이것은 民族的 良心위에 새로 建國하는途上에 必要한 靑年의 敎育的要素이니 이것을 敎育的으로잘 誘導하여 研究하고 努力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옛敎育文獻에서 얼마던지 發見할수있는 美風이었읍니다 우리는 完成老大한 西洋國家의 敎育行政이나 敎育方式을 고대로가져오지말고 우리現實에맞도록 修正하여가며 받어들이지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그러므로 上策은 이위에말한 盟休原因을 再檢討하여 이를根本的으로修正하는것이오 中策은 人事其他可能한條件은 들어주며 또不可能한條件은 學生이讓步하며 妥協하는것이오 下策은 文敎部에서친구가말한 再募集이라는것인데 이것은 解決策이아니오 紛糾를더이르킬 拙策이니까 賢明한文敎部친구들이 아마 이런措處는 아니할줄로 믿습니다。

煽動만으론못볼것

當局도反省해볼餘地있다

朝鮮語學會 李克魯氏 談

맹휴가 중학교에까지 파급된것은 큰사회문제이다 이사실을 구명해볼때 반드시 원인이있어 터저나온것이라고본다 봄에 바우밑에서 빠저나오는 연한싹이 바우를 떠밀고나오는 힘은 생명력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이번에 터진맹휴도 반드시 그속에 내재한 무슨 원인이있었기에 그렇게 크게 터진것이라고 볼수있다 결코 한두사람의 선동으로 대중이 움직이는법은 아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억압만해서는 안된다 피압박민족의 공통한심리로 억압을 무서워하면서도 증오하는것이다 우리민족은 너무오래동안 억울한억압을 받었기때문에 억압으로만 해결하려해서는 모든 폭발의원인만 만드는것이된다 증오를 느끼는 당국은 반성으로써 단순히 남에게 책임전가만 시키는 졸렬한 행동을 버리고 개선하도록 반성해서 사태를 수습해야할것이다

責任은雙方에

朝鮮銀行理事 具鎔書氏談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코무리라고는 할수없으나 지금조선의 현상으로 보아 어려운문제가아닐가 생각한다 배움에있는 학생인 다소의 불편과 부자유한점이있다하더라도 힘써공부해야할것이며 학교측에서도 학생의요구하는바에 귀를기우려 고칠점은 속속고처나가야한것이다

三千万의總力發揚

◎金泉 (其一)

金泉郡廳 職員一同

金泉邑城內町 各種料理 靑丘食堂

金泉少年刑務所 職員一同

金泉邑錦町 建設電氣工業社

金泉專賣局長 郭玄秀

金泉邑大和町 各種鑄物 各種農機具製造 金元工社

金泉警察署長 尹甲達

金泉砂防管理署

金泉邑城內町 高級寫場 東洋寫眞舘

金泉邑長 朴玩

독립은 못됐지만 생활의 개선부터나

李兌榮

근대의 문명은 인류에게 분명히 좋고 편리한 생활의 방법과 양식을 가저다 주고 있음니다 세계 모든 제국민은 그 해택에 인간으로서의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택 [illegible]

[illegible]

(筆者는 人事行政處長 鄭一亨博士夫人)

學園에 絶對自由를

産業建設協議會 河允道氏 談

학생맹휴에 대하야 느끼는 바는 이렇다、남조선에서 학자를 잃은 것은 사실이요 최대의 손실이다 학문연구에는 절대자유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도 과거에 러가지 사건으로 파면되였든 교수들이 항복과 함께 다시 등단하였으나 그러한 손실을 회복함은 큰 손실인 것이다 물론 조선의 학적수준이 낮어하로 마도 배우지 않으면 안될 이때 만일 어느 정치적인 세력에 지배되는 일이 있다면 이 이상의 유감사는 없다 아니할수 없으나 학문의 자유를 위하야 싸우는 학생의 태도는 시인치 않을수없으니 문교당국은 구속된 고집을 버리고 잘 시인하고 잘못을 철회하는 체면이나 위신문제에 꽂이 있다면 솔직히 이를 여야할 것이다

海寇와 朝鮮水軍

鄭琪永

壬辰倭亂時、陸戰에서는 섭사리 敵의 蹂躪을 받으면서 海上에서는 敵의 補給을 處處에서 殺碎하여 猛威를 나타내는 同時에 制海權을 잡고 倭의 西進을 頓挫시킨 우리 水軍의 功績은 戰史에 赫赫한 것이 있다。이것은 우리 水軍에 忠武公과 같은 名將이 있었든 까닭이지마는 또 一面에는 麗末以來 來整備發展하여 온 朝鮮水軍의 成果가 나타남이라고도 볼수 있다。三面이 바다인 우리 朝鮮에는 羅麗以來 次海寇의 侵犯을 받어 기에 대한 防禦도 우리 軍이 成長하여 왔음은 日한 事實이다。그럼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즉부터 百船將軍이니 戰艦兵糧都監、水軍船軍等의 記錄이 보이나 水軍의 定制가 確立하게 된은 麗末、이르러서라고 할수있다 그림으로 나는 麗末鮮初에 우리 水軍이 어떻게 하여 發達하였는가 簡單히 더듬어 보기로 한다

高宗十九年七月에는 蒙寇의 날카로운 칼을 避하야 서울을 江華에다 옮기매 崔怡는 翌年 諸軍에 令하야 甲串江沿岸의 防戍를 嚴하게 하고 또 同江에서 水戰을 訓練시켰다。[illegible] 寇이라 [illegible] 前後三十餘年間 [illegible] 上은 麗史에도 [illegible] 하면서도 실으리만 [illegible] 江華의 海峽을 건너서지 못한 深刻한 敎訓이 水軍의 發展에 거듭이 되였다

이더다가 마츰내 出陸하여 王이 還京하자 三別抄가 反亂、船艦을 좋아 海寇로 變하야 南下하니 하등한 其勢力이 南海에 멀쳤다。麗朝에서는 金方慶과 蒙人忻都洪茶丘等의 應援을 받어 全羅道水軍百六十艘、水陸兵一萬餘人으로써 濟州島의 根據地를 覆滅시킴에 겨우 三別抄도 鎭定되였다。

元宗이 出陸하든 이듬해 元이 日本을 칠計劃으로 高麗에게 造船命令을 내렸다。麗朝에서는 金方慶을 東南道都督使로 하여 造船의 監督官으로 삼고 許珙、洪祿遒等을 造船官으로 任命하야 湖南의 邊山과 天冠山에다 造船所를 設置하고 工匠三萬五百名을 動員시켜 九百餘艘의 戰艦을 만들었다 不過 半年만에 이工事를 마치니 十月에는 麗元聯合軍이 合浦에서 떠나 對馬와 壹岐島를 占領하고 博多에 이르렀으나 不幸이도 밤중에 颶風을 만나 戰艦의 多數를 잃고 功없이 도라왔다 元은 곳 再征을 準備하여 또다시 船艦의 建造를 高麗에 命하였다 이번에는 造船作業에도 熟練하여졌으므로 一年동안에 이工事를 完了할수있었다 忠烈王七年五月에는 忻都、金方慶과 范文虎等이 日本을 再征하였오나 이번에도 颱風으로 失敗하였다 이와 같이 再次의 東征에 高麗의 負擔이 莫大하였으므로 戰後國勢는 매우 凋弊하여졌다 그러나 水軍發達史上으로 볼적에는 戰艦火器의 使用造船術等에 發展을 보게된바 크다 卽高麗에서 建造한 船艦이 매우 堅牢하였다는 것은 元史張禧傳에 「暴風으로 大小船艦이 殆半破碎함에도 不拘하고 高麗建造의 船艦만이 堅牢하야 完全하였다」고 있음을 보더라도 얼마나 高麗의 造船術이 其當時에 있어서 優秀하였음을 알수 있다

高宗時부터 보이기 시작한 倭寇가 忠定王二年以後에는 激甚하여저 每年 보이기까지 이르렀다 忠定王二年에는 慶尚全羅道에 都指揮使全羅揚廣道에는 都巡問使를 두어 防備에 任하고 나아가 海上에서 倭船을 捕捉하도 못하였다 그러나 當時高麗의 軍規는 頹廢船艦武器도 不備하여 到底히 倭寇를 掃蕩할수가 없어 倭船의 跳梁을 보고있을 따름이였었다 日甚하여가는 倭寇를 물리치자면 在來의 舟師나 外交手段에 呼訴함으로서는 效果가 없고 다못 熟達한 水軍發射에 依한 水戰의 必要性을 上下가 切實히 느끼든 次 恭愍王二十二年에 禹玄寶의 上疏를 비롯하야 李穡、鄭地等의 獻策이 있어 正式으로 水軍을 두게 되였다 卽鄭地를 全羅道安撫使에 李禧를 楊廣道安撫使에 任命하고 各各衆倭人追捕萬戶로 하야 地에게는 麾下의 士、八十五人을 禧에게는 六十五人을 주어서 倭寇討伐에 보내였다 또 한편 元에 火藥礦黃、焰焇等의 火器火藥을 求하고 崔茂宣은 또 元의 焰焇師 李元에게서 火藥火砲의 製造를 習得하야 辛禑時에는 火藥局을 두어 茂宣을 提調官으로 하야 其修鍊에 從事식이며 火㷁都監을 設置하야 其製造를 獎勵하였다 이리하야 火砲를 兵船에 싣고 交戰時에 賊船을 燒毁하니 戰術上大革新을 이르켰다

恭讓王時에는 召募編成法이 되고 中央에는 司水署를 두어 全羅、慶尚楊廣三道에는 水軍都體察使를 配置하야 水軍의 基礎가 집히게 되였다 李朝에 들어서 水軍을 積極的으로 獎勵함과 同時에 其制度配置에 盡心하고 兵船의 構造形式等의 研究를 熱心히 하였다 水軍의 官職으로 都節制使、節制使、僉節制使萬戶千戶百戶等을 두고 船艦에는 戰斗用으로 大猛船、中猛船이 있고 偵察搜索追擊用으로 小猛船、無軍小猛船等을 많이 맨들어 八道에 配置하고 弓箭과 火器의 使用法을 習鍊하니 麗末以來 그다지도 甚하던 倭寇도 덤비어 볼틈이 없게 되여 스스로 흔적을 감추게되였다 李初의 戰艦中에 龜船이 보이니 卽太宗十三年二月에 王이 親히 臨津江에서 龜船과 倭船과의 模擬戰을 보고 戰艦의 構造에 애를 쓰고 또 同十五年七月에 卓愼이 上疏한 兵備事宜中에는 比較的 仔細히 龜船에 關하야 「龜船之法、衝突衆敵、而敵不能害、可謂決勝之良策、更令堅巧造作、以備戰勝之具」라고 實錄에 보인다 이로서 생각건대 壬亂에 活躍한 龜船은 李初로부터 存在하였음을 忠武公이 其構造와 裝備에 特히 많은 創意를 加하여 世界船舶史上 鐵甲船의 先驅라기까지 完成하였다고 볼수있다

以上과 같은 經路를 밟어 우리 水軍이 發達하여 其全力을 壬亂에 忠武公과 같은 名將을 기다려 充分히 發揮할수 있었든 것이다 (筆者는 國史館修撰士)

거북한 姿勢………(熊超)

中學盟休는 寒心한 事態

孝悌國民校長 尹在千氏 談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중학생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이르러서는 특히 이 불미한 현상에 중학생들의 사회재판단력과 민생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제능과 모의심의 저라에서 생겼다고 볼수있는 점에서 더욱 전조선사회문제로서 우려할 바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 중학교 선생들의 조선교육자로서의 뚜렷한 신념과 눈물로써 학생을 격려하여 배우게 하는 애국적 열정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수없다 조선의 현단에 있어서는 우선 배워야한다는 것이 조선학도들의 가장 큰 대의명분일진대 무엇보다도 현직교육자들의 자각과 굿센 지도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盟休에는 損害뿐

政治運動에 利用함은 不可

서울地方審理院長 張璟根氏 談

이번에 이러난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두가지로 나누어볼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학교에 불평이 있다고 해서 「스트라익」을 하는 것은 온치 못한 일이며 또 하나는 「스트라익」을 정치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지금 조선의 사회상태가 혼란하여 학원에까지 그 영향이 없을수 없음은 부득이한 일이나 배움에 있는 학생은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학업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학생 개인의 손실일뿐더러 국가의 큰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詩

별을 않고

李洽

노상
내 고장이 서름뫼
입 닳은고
별은 바라보는
버릇을 배워……
남이사 알라
별 않은 마음은 아뭐
푸른 한울에 흘리는 눈물。

노상
내 고장이 서름뫼
왼고개 치고
행낭로 닭은 께고 오는
버릇을 배워……
남이사 알라
한울은 중저 사는
무저귀를 달머 가는것을……。

詩集「柊梢」에서

新刊紹介

▲鐵筆習字帖 上中卷 林東駿書(中等學校用 軍政廳文敎部檢定) 서울市鍾路二街 金龍圖書文具株式會社發行 定價一部 二十五圓

▲建國과 國民經濟(우리는 어떻게 살까) 李健赫著 서울市鍾路二街九一 金龍圖書文具株式會社發行 定價五〇圓

▲어린이신문 第五三、五四號 서울市太平路二街 一高麗文化社發行 定價一部一圓八〇錢

▲朝鮮銀行統計月報 九月分 서울市南大門路三街一一〇 朝鮮銀行發行

寶玉藏

◎金泉(其二)

慶北道立金泉醫院

金泉消防署

金泉邑錦町 金泉鑄物工場

金泉審理支院

金泉檢察支院

金泉金融團

絹絲 羊毛 駱駝 加工業者의 喜消息

足踏機 農家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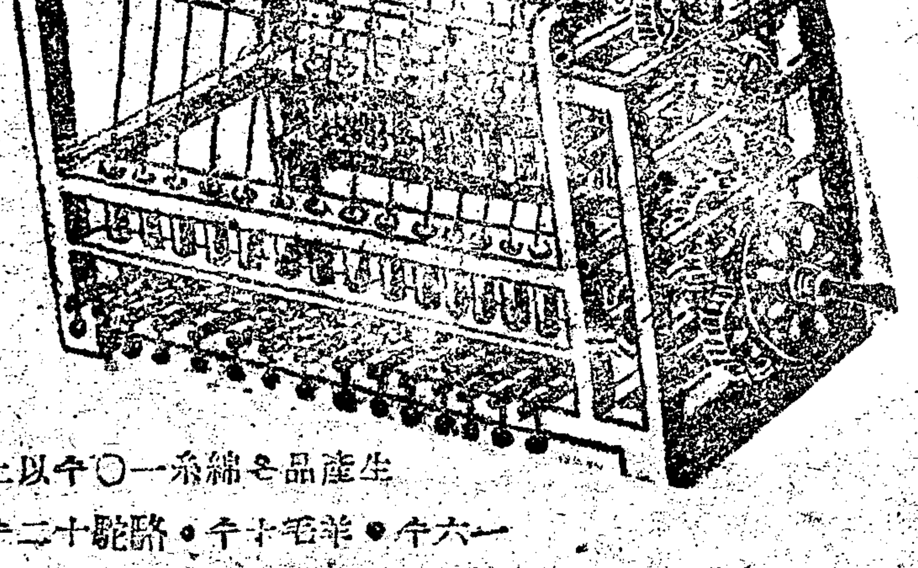
三〇〇口 五〇〇口 一〇〇〇口 單相모-타 家內工業用

工場工業用

二〇〇口 三〇〇口 四〇〇口 五〇〇口 六〇〇口 動力機二馬力

七〇〇口 八〇〇口 九〇〇口 一〇〇〇口 動力機三馬力

製絲機 連絲機 製造販賣



生産品은 綿糸一〇수以上

一六수•羊毛十수•駱駝十二수

合資會社 三和製糸機工作所

서울市鍾路區樂園洞二五一番地 電話光化門⑧一七六六

總長, 理事에 朝鮮人選出

九大學도 열고 文敎部서 決定

국립서울대학안 반대에 기인한 동맹휴학 수습책에 고심하던 문교당국에서는 十일오전 十一시부터 오후 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대학각장회를 열고 교이사회이사와 총장을 중견으로 심중 협의한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다 한다

종합대학교총장을 조선인으로 선출하되 장차 개조될 이사회의 선거에 의할것이며 이사는 전부 조선인으로 조직이 되는데 있어서는 문교부장은 군정청 외에 간인을 선출할것이나 다만 이 이사회 자체내에 총장만이 이사로서 들수있는것이다 그리고 새로 이사회를 조직하는 순서로서는 학생이 청각부처장이 九명을 추천하야 입법의원의 동의를 얻은후에 군정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이 九명이 이사회가 되어 총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다 한다 문교부에서는 학교당국에 휴학생 처리로서 요구조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十一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기로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을 자유로 연구함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간섭도 아무 위해가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을 확언함 모든 학생은 요구 기한 四일 이전에 있어서 학생 본분을 지키면서 정당한 방식을 가지고 항의할수 있는 권리 어떤 면 요구한다 ... 順序로서 들어 오게하기를 바라는 것을 바란다 ... 합이 유 순서 정 ... 하고 결정을 지었다 한다 총장에 관리자 국립대학 九개 이사회에 부여 ...

學園自由를 保障

盟休는 臆測에 起因

吳次長談

그간 동맹휴학한 학생이 요구조건을 검토하야 부형측의 이 설명을 근본방침을 이해치못한과 그릇된 억측에 유인된바 적지않다고 생각됨으로 이에 학생들은 각조건에 대한 소견을 요구하야서 정부의 방침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이를 밝히야 학생에게 신속히 전달하야 하도록 바래며 학원내에 이 사회(理事會)의 전부조선인을 명확히 하야 계획으로 신중고려중인 문제 이 에 대하야 二평화적 발동될 것은 학원내에 찰권이 발동될 같은 위험은 절대로 없을것을 약속한다 이 원내에 있지 못할 바이다 ... 법학자체위원 가결 발생할 때는 찰권이 행사될수 없을것이다 ... 학원이 평화리에 운영되지 못할때 그러나 학생 스스로도 학생자신의 자유를 ... 학교에 관한 점도 없고 또 간섭치 못하는 학원을 요망한다 학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야 학교당국과 협력하여 ... 학생 당국은 ... 조선인 중심의 학교를 요망한다 ... 아닌 학생들이 여러 면에서 ...

맥휴요구조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오천석(吳天錫) 문교부차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한다

警察의 審判干涉

法曹界서 問題를 重大視

지난八일 고문경찰관김동순(金東淳) 심리 및 판결에 대한 경위에 대하야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찰관이 발표한 판결에 불복하고 김용무(金用茂)씨 판결에 대하여 재판문제에 간섭 ... 심(沈)씨가 판사로부터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 경관장 ... 이이홍(李益興)의 서명 ... 수단을 취해 상소 의 뜻을 표명 ... 金秉道씨도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金司法部長談

十五일 사법부장 김병로(金炳魯)씨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경찰이 항의하였다는 것은 수사의 경찰서장이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법계를 총망라하여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기로 하였다 사건은 이 법원측에서도 취하여 적극적 ...

大法院長談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장 김용무(金用茂)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중대하므로 신중히 고려중이다 국에서 적당히 처리할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으로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

辯護士長會 李弘鍾氏談

이번 경찰의 사법간섭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 재판의 공정을 ... 하였다 ... 법치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司法의 獨立

外部壓力은 絶對不當

이번 판결문제에 대한(권) 경찰의 항의는 지금 三권을 분립시켜 통치권(統治權)을 행사하고 있는때 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문제의 사건은 삼권분립의 자주국가에 있어서 정치상 필요한 조선에서 민주국가의 요청되어있는 것이다 군정하에서도 사법권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군정 아래 있어서도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 군정청의 방침도 명령 제六十七조에 의한 운영은 신임하고 사법권의 존중을 보장하여 ...

... 사법의 권위를 위하여 ... 최근 사법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 지난 十一일 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공동명의로 ...

玄海灘에 血鬪劇

倭賊들이 同胞殺害

【釜山十五日發 朝鮮通信】오는 十二일 오후 가현(佐賀縣) 西唐津에 정박하여있던 조선인 밀선에 일본인(日本音 가지丸)에 탈취한 목적으로 三십여명의 왜적이 습격 ... 명이 결탁하야 살해하고 화물을 강탈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인 ... 마산(馬山) 선원 심(沈)씨외 이(李)씨 등 ...

서울市代表

立議員補選

十五일 김서울시장은 지난번 입법의원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대표 조소앙(趙素昻)씨가 의원을 사퇴하였으므로 오는 이十四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日時 = 二月二十日(金) 午前十時부터 十二時까지
△場所 = 南大門國民學校講堂

最終選擧
△日時 = 二月二十四日(月) 午前十時부터 二時까지
△場所 = 南大門國民學校講堂

民戰一周年記念大會盛況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는 一주년기념대회를 지난 十五일 오전 十一시부터 천도교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먼저 민전 「民戰」 의장 허헌(許憲)씨의 개회사에 이어 남로당 「南勞黨」 이기석 「李基錫」 씨 대표와 민혁당 「民革黨」 김원봉 「金元鳳」 씨 대표 그리고 윤증우 「尹澄宇」 민주여성동맹대표 유영준 「劉英俊」 씨 등의 축사가 있은 다음 여흥 「餘興」 으로 대체도 운노 ... 오후 四시경 폐회하였다

南北郵便物交換

제二십三회 三八이남 「以南」 우편물의 교환은 지난 八일 실시하였는데 우편물은 ...

末端警官의 잘못

告示取消에 張總監의辯

지난 十三일에 개최된 문화예술인 제二회 민전문화옹호대회에서는 장경무총감(張警務總監)의 고시(告示)를 취소하도록 요구할것을 결정하고 윤행중(尹行重)씨외 六명이 경무부에 ...

留學生召喚件에

文敎部顧問渡日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인학생의 취급에 관하여 ...

추이도 마지막

來日이면 풀인다

요몇일 동안 지독히 추웠던 날씨도 來日부터는 풀릴 것이라고 ...

金永基氏釋放

不拘束取調키로

인천 조일(朝日) 양조장 사장 김영기(金永基)씨는 그간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취조를 받아오던중 十四일 석방되었다 ...

完全盟休校는 없다

大部分의 中學校는 授業中

서울시내 중학교의 맹휴문제는 그후 점차 수습되어가고 있는 형편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

狂犬病發生

廿名이 死亡

【光州】제주도에서는 광견병(狂犬病)이 발생되어 그 피해로 이백명에 달하였다 하며 그중 별사망자 二십명을 내었다 한다

日氣豫報

京仁地方은 北西風이 불고 맑겠다
氣溫 = 最高 零下四度四分 最低 十一度七分

假字監察官逮捕

가짜 감찰관 ... 동二九五에주소를둔 영유(孫泳倫)는 경무부 ... 관방 ... 기 ... 계 ... 하야 ...

全北新聞에 「테로」

記事揭載拒否로

지난 ... 일 전주 ... 전북신문사(全北新聞社)에 모청년회원 ... 이 나타나 「서북진상」 기사게재를 거부당하자 ...

培材中學校 盟休는 浪說

同學友會서 聲明

배재중학교우회에서는 맹휴는 낭설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豫約拜受

新規漢藥種 臨試驗準備에
唯一無二한寶典
國漢藥物學 洋裝一卷 定價 三百五十圓
豫約價 三百圓 (地方及個人은 郵稅를 添)
配本은 三月下旬 地方送料無料
送金處 서울市西大門路一街一二四
醫藥書林 出版部

殺鼠劑 開發
百發百中 必死全滅
쥐약
各道配給所募集 各特約店
研究所 藥物研究所 大韓工業 서울醫藥所
서울市西小門洞五 電光三 559

獨學生募集
中學部講義錄配付中
希望者는 卽時入學案內書를 請求하라
少年의 唯一한機會이노라
서울市東大門區新設洞三七二의六號
正式認可 朝鮮綜合學院

金玉橋白
電光 二一一五 八五八番
西紀一九四七年二月 日

開業謹告
朝鮮料理 天香園 을復興
開設하였사오니 隨時枉臨하시와 幸賜盼咐하심을 伏望하압나이다
서울市鍾路區公平洞三五番地
(和信뒤 골목 구름다리로 드러오서면 막다른집)

朴鍾文齒科
서울市南大門市場앞 電話本局二三六一

朝鮮日報社 廣告部直通電話 本局②三三八四番

金澄海觀相所
서울瑞麟洞四一의一
作名과 身數

빠마機械一切 各種빠마藥品一切 安價로 賣渡함
서울市孝子町百番地 超漢劑方 李東奎

高級洋酒 高麗부란디